

최근 영유아기부터 시작되는 교육 경험의 차이를 해소하여 '생애초기 출발선의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OECD도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 발달은 5세 이전에 대체로 완성되므로 양질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우리 교육부도 지난 2012년부터 누리과정을 도입하여 모든 아이들이 기관에 관계없이 수준 높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왔고,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내실화를 위해 지난 12월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여 저소득층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유아 중심의 교육문화 혁신,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 1.

유아기는 개인의 삶 전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창의적, 능동적 인재 양성을 위한 출발점이다. OECD도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 발달은 5세 이전에 대체로 완성되어 이후의 학습과 삶의 질에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므로 양질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유아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초·중·고 단계의 교육과 구분되는 유아교육의 필요성이 커졌고,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을 통하여 구체화된 지 어느덧 15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부터 유치원 교육과정

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누리과정을 도입하여 모든 아이들이 기관에 관계없이 수준 높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기관에 관계없이 월 22만원의 균등한 학부모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유아들이 교육기관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2년에는 87.9%에 머물던 유아교육기관 취학률은 2016년 92.1%까지 증가하였다. 비록 그러한 과정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부담과 관련하여 교육부-교육청 간 갈등이 있었지만, 새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철학 아래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를 추진

하고자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공공성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는 향후 정부가 5년 간 추진해나갈 유아교육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보다 많은 유아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유아가 중심이 되는 교육현장으로의 변화 필요성 등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 2. 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에서 제시한 향후 유아교육의 주요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를 포함한 모든 유아, 저소득층, 특수, 다문화 유아로 구분하여 초·중·고에 비해 부족했던 실질적 교육기회의 평등을 추진하고, 학부모의 선호가 높은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해나간다. 둘째, ‘유아가 중심이 되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교육과정 및 교사 지도서에 대한 재검토 및 개선을 추진해나가고, 유아대상 과도한 사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방과후 과정 등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유아중심의 교육문화를 선도하는 혁신유치원을 확대해나간다. 셋째, ‘학부모와 현장교원이 유아교육에 보다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교원에 대한 업무 경감과 학부모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 혁신을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현장의 유치원 평가 및 사립유치원 교원의 임용·임금 체계 등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나간다.

유아교육 혁신방안 가운데 주요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 가)

교육부는 유아단계부터 실질적 교육기회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기관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유아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추진해나간다. 지난 정부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 대한 시·도교육청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집 학부모에 대한 보육료 지원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하여 학부모들의 보육료 지원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나간다.

아울러,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는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가 지원되고, 대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등 보편적 지원 이외에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추가 지원이 있었음에도 유아에게는 지원이 부족하였던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층 유아에게도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권을 확대해나가고, 사립유치원에 취원하더라도 추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이 유아기부터 우리나라 교육에 원활히 통합될 수 있도록 다문화 유치원, 다문화 가정 교육 등을 확산해나가고, 나날이 증가하는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수용하여 5년 간 공립유치원 내 400개 이상의 특수학급과 전국 광역 단위에 통합유치원<sup>1)</sup>을 최소 1개 이상 확보해나간다.

#### )

학부모의 높은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1) 통합유치원 :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1:1 비율로 배치하여 완전 통합교육 실시, 학급 수업 시 특수, 일반교원을 각각 배치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집중 관리

유치원 취원율은 여전히 2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물론 지난 5년 간 지역별로 최대 50% 이상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지역별로 보다 고른 국공립 유치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향후 지역 유형에 따라 단·병설을 유동적으로 확대해나가고, 학교용지법 개정 등을 통하여 시·도교육청의 예산부담을 완화하여 같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양적 확대와 더불어 과밀, 과소학급의 개선을 통해 유아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공영형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매입 후 공공위탁,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 등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등 또한 유치원 현장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 예정이다.

## 2)

### 가)

유아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선하여 무엇보다 유아가 중시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미국의 교육학자 존 듀이는 “교육은 삶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삶 그 자체”라는 오래된 명언을 남긴 바 있다. 유아들의 삶의 핵심이자 삶을 배워가는 도구인 놀이를 되찾아 주는 것은 유아의 권리 및 유아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누리과정을 학습을 위한 놀이에서 자유놀이 방식으로 개편하며 기존의 교사의 획일화된 교육을 주도해온 교사용 지도서·지침서를 대폭 간소화하여 현장의 교육 자율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 )

기존 관리자 중심의 유치원 운영을 개선하여 학부모, 교원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구조를

확보하는 혁신유치원을 확대한다. 기존 초·중등 단계의 혁신학교와 유사하게 지역의 자율적인 혁신문화 확산을 존중하는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며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확보할 예정이다.

### )

무분별한 특성화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과정에 대한 역할을 재정립할 예정이다. 방과후과정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선행학습, 교과 위주보다는 학부모의 수요를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사교육 문화를 개선하고, 유아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한다. 놀이, 휴식, 언어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3) ...

### 가) .

미세먼지 등의 확대에 따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건강·안전과 관련된 영역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학부모 안심유치원으로 지정한다. 학부모의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학부모 토크콘서트, 학부모회 등을 활성화하고, 학부모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학부모 참여교실의 운영을 확대한다.

아울러, 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에 추가 행정직원 배치를 활성화하여 현장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교원의 휴가, 연수 등이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풀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 학부모들이 유아의 통학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등하교 안심알리미, 교

원의 심리치료센터 등의 운영을 확대해나간다.

)

문서위주의 형질화, 계량화된 유치원 평가를 개선하여 유치원 현장의 교육철학과 운영방식을 존중하는 평가 방식이 마련될 예정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의 자체적 개도를 촉구하며 타 평가와의 중복평가 등을 방지하여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국공립-사립 교원 간 기본급 격차 해소를 위해 5년간 단계적으로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를 개선해나감에 사립유치원에도 우수한 교원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립유치원 교원 풀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 3.

지금까지 유아교육 혁신방안 가운데 주요 정책을 살펴보았다. 아이들은 한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자 그 자체가 국가의 미래로 유아교육은 아이들의 전 생애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 시기의 교육격차가 초·중·고로 올라갈수록 누적·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챙겨보아야 할 부분이다. 앞으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이행하는데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 속에서 순탄하지만은 않겠지만, 교육부는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과 함께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추진해나갈 것이다.